

李白詩歌에서 商人의 婦女像

— 別離의 苦痛을 中心으로 —

郭 利 夫

目 次

一. 序 論	3. 巴女詞
二. 本 論	4. 荊州歌
1. 長干行 二首 其一·二.	三. 結 論
2. 江夏行	

一. 序 論

詩仙 李白 (701~762年) 唐代는 勿論이려니와 中國文學上의 巨擘이다.

現存하는 李白의 詩歌는 모두 1049首인데, 그 중에서 婦女에 關한 詩歌는 約 80餘首가 있다. 그의 豪宕 飄逸한 性格面에서 보건대, 그 比重은 크며, 研究할 價値가 充分히 있다고 하겠다.

李白은 女性의 形象을 描寫함에 있어서 縱橫으로 自由奔放하고, 纖細하게 表現하였다. 廣範圍한 女性像을 大略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가 있겠다.

1. 宮中에서 生活하는 宮女像.
2. 邊方地帶에 出征한 님을 사모하는 婦女像.
3. 長江을 오르내리며 장사를 하는 商人의 婦女像.
4. 一般 庶民의 女性像.
5. 妓女들의 女人像.

以上の 五種의 類型 가운데서 別離의 苦痛을 甘受해야 하는 婦女像은 遠征을 나간 님을 그리 는 것과 長江을 南北으로 오르내리며 상업에 종사하는 商人의 婦女像이다. 遠征을 나가는 것은, 唐代의 初期에 施行된 府兵制에 依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 兵役을 치뤄야 하는 政策上의 問題이

다. 그러나 商人은 封建社會에서 金錢은 重視하고 別離를 輕視하는 傾向의 것이고 官吏들이 三·四名의 妻妾을 두는 것은 예사의 일이며, 또 妾과 떨어지는 것도 보통의 일이었다. 白居易의 「母別子」에서 그러한 사실을 역력히 볼 수 있다. 商人도 例外는 아니다. 杜甫의 「負薪行」에서 南尊女卑思想을 은밀하게 비난하고 있다.

唐代의 婦女子는 獨立된 經濟的 地位를 못 가졌으며 반드시 男子에 依持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官僚 貴族의 집안에서 婦人을 除外하고는, 妾이나 婢女들은 地位가 비교적 낮아서, 習慣上 買賣나 贈與할 수도 있었다. 當時의 崔郊의 「贈去婢」는 좋은 例이다. 또 商業次 出他하여 몇 해동안 소식 없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女性 詩人 郭紹蘭은 「寄夫」에서 “我婿去重湖，臨窓泣血書。殷勤 凭燕翼，寄與薄情夫。”라고 哀切하게 읊고 있다.

本稿에서는, 黃金을 重視하는 商人의 婦女들에 關한 李白의 詩歌들을 分析 考究하고자 하며 餘他的 女性像은 다른 論文이 必要하겠다.

二. 本 論

六朝以來로 唐代에까지도 婦女를 題材로 詩歌化한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商人의 婦女像을 描寫한 作品은 과히 많지 않다.

李白과 同時代의 詩人 白居易는 「鹽商婦」에서 當時의 獨占專賣事業인 소금장수를 하는 婦女의 奢侈를 極한 生活狀을 描寫하여 미친한 출신의 아낙네를 諷諫한 詩가 있으나, 그러한 婦女는 極少數에 지나지 않고, 그의 「琵琶行」은 「長恨歌」처럼 千古의 名作으로 愛誦되고 있다.

李白의 詩歌에서 商人의 婦女像을 살펴 보겠다.

1.1. 長干行二首其一

妾髮初覆額	제 머리카락 이마를 덮을 즈음에
折花門前劇	꽃 꺾어 내 집 앞에 노닐었어라.
郎騎竹馬來	사내는 竹馬 타고 날 찾아와서는
邊牀弄青梅	평상 맴돌며 青梅 꺾어 함께 놀았었죠.
同居長千里	더불어 의 종았던 長干의 세월
兩小無嫌猜	미움도 시세움도 바이 없었고.
十四爲君婦	열 네살 나이 되어 님께
羞顏未嘗開	수줍어 얼굴 한번 눈이 못들었고.
低頭向暗壁	고개 숙여 어둔 벽만 향해 살며
千喚不一迴	일천 번을 불러도 모른체 했네.
十五始展眉	한해가 지났어야 얼굴 맞보고
願同塵與灰	죽어서 더불어 재되도록 맹세했지요.
常存抱柱信	자나깨나 낭군님을 하늘로 믿어
豈上望夫臺	망부석 설은 전설 아랑곳하랴.
十六君遠行	하지만, 일 여섯엔 님은 떠나서

瞿塘灘頭堆 瞿塘峽 灘頭堆 그 험한 뱃길.
 五月不可觸 아꼐사, 물이 붉은 오월이거든
 猿聲天上哀 잔나비 높은 벼랑 구슬뜨거늘
 門前運行跡 대문 앞 님의 자국 오래 있더니
 一一生綠苔 인제는 푸른 이끼 서리는 구나.
 苔深不能掃 뿌리 깊어 비질도 못 다 하거늘
 落葉秋風早 어느새 가을 낙엽 낭자한지고.
 八月胡蝶來 달 가고 팔월이라 나비 찾아와
 雙飛西園草 쌍쌍이 서너 트락 어지럽구나.
 感此傷妾心 덧없는 세월 앞에 마음 애답아
 坐愁紅顏老 청춘의 내 얼굴이 주름졌구나.
 早晚下三巴 조만간, 三巴에서 돌아 오려니
 預將書報家 어느 누구 소식을 전해 줘으면.
 相迎不道遠 하 멀어 어찌 마중 가리오마는
 直至長風沙 애오라지 長風沙에 님마중 가리다.

[韻·劇(陌韻) 來·梅·菊·開·迴·灰·臺·堆·哀·苔(灰韻) 掃·早·草·老(皓韻) 巴·家·沙(麻韻)]

윗 詩는 舊題를 襲用하여 새로운 內容의 素朴하고 眞率한 樂府詩로 改作한 것이다. 郭茂倩은 『樂府詩集』卷十二에 南朝의 吳歌雜曲古辭「長干曲」一首를 揭載하였으니 “利浪故相邀, 菱舟不怕搖. 妾家揚子住, 便弄廣陵潮.”라는 五言四句가 있다. 그 內容은 少女가 배를 타고 마름을 따러 가는 도중의 情景을 읊은 것이다. 唐代의 崔顥, 崔國輔 역시 「長干曲」과 「小長干曲」을 지었으니 모두 五言四句의 小樂府이다.¹⁾

「長干行」의 長干은 江蘇省 江寧縣의 南쪽에 있고 平民이 雜居하고 있으며 大長干과 小長干이 있으니, 지금의 곧 南京市 中華門 밖이다.²⁾ 行은 引·歌·曲等과 함께 樂府의 題名으로 쓰였던 詩歌의 一體이다.

李白은 長干에 사는 商人의 妻가 멀리 떠나 있는 님이 돌아오기를 念願하는 內容인바, 그는 第三人稱이 아닌 第一人稱의 手法으로 五言三十句를 써냈다. 各句를 分析하여 再構成하여 大意를 把握해 보겠다.

第一句에서, 제 머리털이 갓 이마를 덮었을 때라고 하여 時間上의 時點을 나타냈고, 第二句에서, “門前”은 空間上의 地點을 表示하고 있다.

第三句에서, 竹馬之交의 純眞한 友情을, 즉 純粹한 異性間의 交際를, 第四句의 “青梅”는 單純한 梅花의 열매·꽃이라기보다는 靑絲를 暗示하고 있다. 李白은 「將進酒」에서 “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靑絲暮成雪”이라고 말한 것이 있다.

第五句의 長干은 地名이며, 『輿地紀勝』에 “建康南五里有山岡, 其間平地, 民庶雜居, 有大長干, 小長干.”이라고 쓰여 있으니, 지금의 南京市 中華門 밖 長干里를 말하는 것이다. 第六句에서는 “無嫌猜”라고 하여 竹馬之交와 類似하다.

第一句에서 第六句까지는 長干行을 四段으로 分類한다면, 그 首段이 되겠다. 長干里에서 時點

1) 沈約, 『神話·愛情·詩』, 台北, 尙友出版社, 1983. p. 78.

2) 沈約, 上揭書, p. 79.

과 起點을 明確히 表示했으며, 天真爛漫하고 天真無垢한 友情과 交際는 竹馬之交 바로 그 自體이다. “青梅竹馬, 兩小無猜.”의 成語가 發生했으며, 人口에 膾炙하는 名詩句이다.

第七·八句에서는, 竹馬之交의 友情에서 情感이 一大轉變하여 一心同體의 夫婦之間이 되었다. 新婚生活의 清新한 新婦의 微細한 心像까지 描寫했다.

第九·十句는, 內心の 喜悅을 滿喫하는 新婦의 像과 外樣의 面面을 表出했다. “千喚不一回”라고 해서 修辭學上的 誇張法을 썼으며, 八句의 “羞顏未嘗開”와 意義는 서로 類似하며 內面의 世界라면, 十句는 外面의 世界라고 하겠다.

第十一句는, 十句의 다음 段階이다. 第十二句에서, 現世는 勿論이러니와 來世에 서로 同苦同樂하기를 冀求하고 있다. 그의 時空擴大에의 志向性을 볼 수 있다. 또한 誇張法이며, 十二句는 「吳聲歌曲·歡聞戀歌」의 “沒命成灰土, 終不能相憐.”의 意義와 같다.³⁾

第十三·十四 兩句에서, “抱柱信,⁴⁾ 望夫台”⁵⁾는 모두 古代로부터 傳說로 내려오는 典故(故事)이다.

특히 望夫台는 部分用事⁶⁾로 많이 쓰이며, 또 望夫山, 望夫石이 있으며 地名으로도 쓰이고 있다.

李白은 表現技巧 중에서 用事를 자주 쓰는 편이니, 蜀에서 少年時節에 刻苦 勉學을 하였기 때문이겠다.

그러면 李白의 全體用事⁷⁾에 입각한 作品을 살펴 보면서, 또 傳說 內容의 一面도 보겠다.

望夫石

髣髴古容儀 옛날의 容顏과 방불하구나
 含愁帶曙光 근심은 쌓여 새벽의 瑞氣를 지녔네.
 露如今日淚 이슬은 오늘의 恨 서린 눈물인 양
 苔似昔年衣 이끼는 옛날에 입었던 옷과 같구나
 有恨同湘女 恨이 맺혀 있음은 湘女와 같고
 無言類楚妃 말 없음은 楚妃와 비슷하구나
 寂然芳籟內 적막하고 향기로운 아침 안개 속
 猶如待不歸 더우기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구나

第十五·十六句에서, 離別의 恨과 瞿塘峽의 巨大한 암초인 灘頭堆의 위험한 뱃길을 근심, 걱정한다.

瞿塘峽은 四川과 湖北省의 境界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長江은 險峻한 巫山 山脈을 가로질

3) 丹青編輯部, 「唐詩의 滋味」, 台北, 丹青圖書公司, 1982. p. 52.

4) 「壯子」, 「盜跖篇」: “尾生與女子期於下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柱而死.” 「史記」 「蘇秦傳」 “信如尾生, 與女子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柱而死.”

5) 沈約, 前揭書, pp. 81~82.

6) 梁會錫, 「用事考」 『中國人文科學』 創刊號, 全大出版部, p. 232.

7) 梁會錫, 上揭書, p. 227.

러 흐르니, 千仞斷崖 가운데를 奔流로 지나고, 急流가 매우 險雜하니, 이곳이 바로 三峽이다. 그 風景은 奇異하고 美麗하다.

三峽은 四川省 奉節縣의 白帝城에서 시작되어, 湖北省 宜昌의 南津關에서 끝이 나니, 총 길이는 204km이다. 그것은 瞿塘峽, 巫峽과 西陵峽을 포함한 것이다.

三峽은 참으로 名實相符한 峽谷으로, 깊고 또한 좁기도 하다. 兩側의 江 언덕은 산봉우리를 이루니, 그 岸壁의 높이는 500 내지 1,000餘 m가 되며, 江面의 幅이 좁은 곳은 100m도 안된다. 그러므로 심한 急流가 되어, 最大의 流速은 每時 30km에 이른다.⁸⁾

瞿塘峽에 관해서는, 初唐의 詩人 陳子昂의 「白帝城懷古」가 있으며, 杜甫의 「長江二首(選一)」, 「瞿塘懷古」, 「白帝城最高樓」, 「白帝」 등이 있고, 白居易의 「夜入瞿塘峽」이 있다.

李白的 瞿塘峽에 대한 詩를 보겠다.

早發白帝城

朝辭白帝彩雲間 아침에 빛깔 구름 사이 백제성을 떠나
千里江陵一日還 천리길 강릉 땅 하루만에 이르네
兩岸猿聲啼不住 양쪽 언덕의 잔나비 울음소리 처절히 울고
輕舟已過萬重山 가벼운 배는 어연간 천길 벼랑 다 누볐네

윗 詩는 李白이 永王 李璣의 軍務에 가담했던 罪로 인해서 夜郎(현재 貴州省 棟梓縣)으로 流配되어 가던 도중에 肅宗 乾元二年(759年)이 朝廷의 大特赦에依해서, 李白이 赦免을 받고 도중의 景觀을 유쾌하고 경쾌하게 감상하며 돌아오는 心情으로 지은 名作이다.

李白이 流配 길에 지은 것 「自巴東舟行經瞿塘峽, 登巫山最高峰, 晚還題避」라는 內容上으로 보전대 정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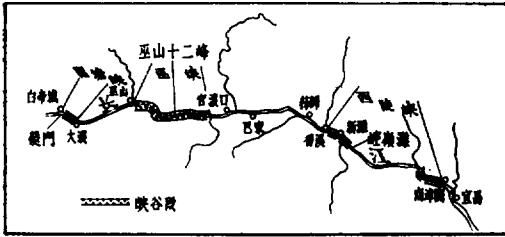
巖頭堆는 瞿塘峽 어귀에 우뚝 서 있는 하나의 큰 암석인데, 冬季의 濁水期 때는 水面 위로 높이가 30m나 된다. 夏季인 5·6월에 降水量이 불어날 때는 巨石이 水中에 묻혀져, 그 주위는 물이 激浪을 이루고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린다. 예부터 뱃사공들이 이곳에 이르면 安全한 航行 與否를 決定하지 못해서 航行을 猶豫했다. 巖頭는 猶豫라는 音에서 轉訛된 것이다. 이곳에서 예부터 얼마나 많은 배가 沈沒했는지 모른다. 1958年 겨울에, 安全한 航行을 위해서 3.5噸의 爆藥을 사용해서 완전히 除去해 버렸다.⁹⁾

杜甫의 「巖頭堆」는 그곳의 험난 함을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第十七·十八 兩句에서, 三峽의 험한 뱃길과 三峽 兩岸의 애처로운 원숭이의 울음소리로 自身의 內心을 表出하고 있다. 激浪과 哀猿의 交叉로 이룩되는 神秘로운 분위기로써 形言키 어려운 女心의 否運과 心像을 조상하고 있다.

8) 栗斯, 『唐詩故事』 第四集, 北京, 地質出版社, 1983. p. 14.

9) 栗斯, 上揭書, 1983. p. 23.



長江三峽圖¹⁰⁾



冬季的灘頭堆(中央的巨石)¹¹⁾

李白的「上三峽」을 보면 特殊한 意象을 알 수 있겠다.

第十九·二十 兩句대에서, 竹馬之交 때의 門前에서가 아닌 門前을 인용함으로써 別離의 苦痛을 은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六月을 暗示하고 있다.

第二十一·二十二, 兩句는 感情의 激動을 自制하며 光陰이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으며, 誇張法을 썼고, 七月을 暗示하고 있다.

李白은 「秋思」에서, 邊方地帶에 出征나가 있는 님을 그리워하며, 젊음을 한탄하는 怨情詩와 비슷한 手法을 썼다.

第二十三·二十四 兩句는, 仲秋에 '西園'에서 쌍쌍이 날아다니며 노니는 나비로써 자신의 고독감을 상서롭지 않게 暗示하고 있다.

第二十五·二十六 兩句는 外界의 景物이 아닌 內心의 煩悶을 한탄하며, 青春이 하염없이 지나감을 슬퍼하고 있다.

第十五句부터 第二十六句까지는 三段인데, 商人의 妻로서 離別하는 순간에서 먼 뱃길의 安全與否와 自身의 주위 환경을 遠近法을 交叉시켜 離別의 恨을 淡泊하게 하는 婦德을 描寫하고 있다.

第二十七·二十八 兩句는 實際로 돌아올 날을 期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빨리 돌아와주기를 希望하는 斷腸의 女心이다.

第二十九·三十句에서, 想像이 現實化되면 좋겠다는, 부인이 님에 대한 열렬한 愛情을 "直至長風沙"라는 誇張法으로 表現하고 있다. 季節의으로는 年末 임을 暗示하고 있다.

第二十七句부터 三十句까지는 末段으로 長風沙는 金陵(現在의 南京)으로부터 四川省 方向으로 中國의 里數로 七百里가 됨으로 詩에서의 女主人公은 長風沙로 가서 님을 迎接하는 것은 당연히 不可能한 일이다. 이것은 그녀의 心情을 描寫한 것에 不過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絶對 眞實이다.

本 詩를 전체적으로 大意를 要約해 보자면, 現實의 生活中에 女主人公이 뚜렷하게 自身을 自覺하게 되는 瞬間에는 獨守空房의 恨이 닳쳐왔다.

10) 栗斯, 上揭書, p. 14.

11) 栗斯, 上揭書, p. 22.

別離의 苦痛을 堪耐해야만 하는 婦女의 像을 春夏秋冬 四季의 季節의 變化에 따라 女心이 變함을 感動的으로 서술하였다.

最後에는 婦女의 강한 運命을 因襲道德에서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婦女의 간절한 素望이라고 하겠으며, 情理의 님이 돌아 오기를 믿고 기원하며 別離를 忍從하는 婦女像이다.

「長干行 一首」를 社會·經濟的인 側面에서 보건대, 李白이 商業에 대하여 충분한 기초적인 知識과 商人의 婦女子에 관한 心情을 十分 理解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作品을 써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어떠한 바탕에서 그러한 素養을 갖출 수 있었는가는, 그의 作品을 통해서 탐색할 수 밖에 없겠다.

특히 李白이 商人과의 관계는, 우선 家業으로써 그의 父親이 상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규명함으로써 理解를 쉽게 할 수 있겠다.

李白이 四川에 있었던 어린 시절에 勉學과 旅行은 經濟的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可能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李白의 父親兄弟들에 대해서 관찰해 보겠다.

李白의 父親이 商業을 했다는 것은 그의 作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는 「與賈少公書」에서 “混游漁商，隱不絕俗”이라 했으며, 또 「金陵與諸賢送權十一序」에서는 “青雲豪士，散在商釣”라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李白이 商業에 종사했다는 學說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李白의 性格과 生活狀을 미뤄보아도 懸隔한 差異가 있다. 나의 見解로는, 李白 自身이 직접 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분의 형님이나 혹은 동생이 長江 연안의 중요한 선창가에서 상업을 經營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그의 집안의 영업 범위는 상당히 넓었으며, 綿州(綿陽縣)의 범위뿐만 아니라 四川省의 地域까지도 포함된다.¹²⁾

李白이 生活한 大部分의 時期는 社會와 經濟는 相當히 繁榮했던 時期이다. 興盛期가 極點에 到達하면 衰落의 時代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歷史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이다.

李白은 「上安州裴長史書」에서 “不逾一年，散金三十餘萬，有落魄公子悉皆濟之，此則詩白之輕財好施也.”라고 했으니, 그의 性格과 經濟的인 面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父親이 商業을 했다는 것은 더욱 확실시 된다. 또 그의 詩를 통해서 보자.

萬憤詩 投魏郎中

.....

南冠君子	南冠을 쓰고 있는 군자여
呼天而啼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하네.
戀高堂而掩泣	고당을 그리며 엎드려 우짖네,
淚血地而成泥	피 눈물 땅에 쏟아져 진흙이 되네.
獄戶春而不草	옥문엔 봄되도 새싹 돋지 않고
獨幽怨而沈迷	홀로 원통해 어찌할바 모르네.

12) 郭沫若, 『李白與杜甫』,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2. p. 19.

兄九江兮弟三峽 형은九江에 동생은三峽에
 悲羽化之難齊 우화등신 어려움이 쉽드라.
 穆陵關北愁愛子 목릉관 북쪽의 귀여운 자식 걱정되고
 豫章天南隔老妻 예장 하늘 남쪽 소식 끊긴老妻
 一門骨肉散百草 한 집안 골육들 잡초처럼 산산히 흩어져

위의 詩는 李白이 晩年에 永王 李璘의 東巡에 參與했던 罪로 肅宗의 官軍에게 붙잡혀 역적으로 몰려, 사형까지 받게 된 몸이었으나, 겨우 목숨만은 건져 夜郎으로 流謫되어 가는 도중의, 尋陽의 獄中에서 절박한 자기욕구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作品이다.

“南冠君子”는 감옥 속의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며, “高堂”은 그의 父母가 囚禁함을 말하고 있다. 또 “兄”은九江에 “弟”는三峽에, “子”는山東에, “妻”는南昌에 있으므로 “一門骨肉”이 서로 멀리 떨어져 서로 소식을 알 수 없었다.

問題인 것은,九江의 형과三峽의 동생이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生活을 營爲 했는가이다. 그들은 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며, 그것 以外는 더 좋은 설명이 없겠다.¹³⁾

李白은 한 명의 女主人公인 商人的 妻로써, 自己의 情感을 寄託하여 읊은 것이라기 보다는, 全 商人的 婦人들을 대신하여 代辯한 것이라고 하겠고, 또 盛唐期에 社會的으로 가리어진 斷面을 問題點으로 露出시켰다고 할 수 있다.

1.2. 長干行二其二首

憶妾深閨裏 생각전대 저는 그옥한 규수
 煙塵不曾識 어찌하여 세상 시름 알았으리요
 嫁與長干人 長干으로 시집 와서 지내는 동안
 沙頭候風色 선창가를 서성이며 날씨를 헤아렸다.
 五月南風興 마파름 부는 오뉴월엔
 思君下巴陵 巴陵에 배 매겼고
 八月西風起 팔월의 갈바람엔
 想君發揚子 양자강 떠났으리 여기었다오.
 去來悲如何 가고 오고, 마중 배웅 하 애답다
 見少離別多 차라리 멀어짐이 너무 오래구나.
 湘潭幾日到 떠난 님은 언제면 湘潭 닿으리
 妾夢越風波 칩 꿈은 풍파 넘어 그곳에 놀고.
 昨夜狂風度 어젯밤 모진 바람 휘싸이더니
 吹折江頭樹 강가의 나뭇가지 부러졌다오
 暗無邊 범람한 냇물은 아득히 먼데
 行人在何處 내 님은 어디에 나그네 더냐.

13) 郭沫若, 上揭書, p. 20.

好乘浮雲驄 말 타고 님 계신 곳 달려를 가서
 佳期蘭渚東 좋은 계절, 포구의 동녘에서 만나고파라.
 鴛鴦綠蒲上 의좋은 원앙새 창포 잎에 노닐고
 翡翠錦屏中 비단 병풍 풍경에 물총새의 짝
 自憐十五餘 서러워라, 이 몸도 열 다섯 적엔
 顏色桃花紅 복사꽃 고운 뺨에 연붉었건만
 那作商人婦 어쩌다 행상인과 일생 짝이 되어서
 愁水復愁風 물 걱정 바람 걱정 편할 날 없소.

[馳·東·中·紅·風(東韻) 度·樹·處(遇韻) 識·色(職韻) 興·陵(蒸韻) 起·子(紙韻) 何·多·波(歌韻)]

위의 詩도 長干行 一首와 別差는 없지만 特히 別離의 心情을 서술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며, 詩語 選擇의 方法에 差異가 있다.

第一·二句에서는, 님께 시집가기 전의 女性이 資質을 涵養薰陶하게 한 家庭環境과 努力을 回想 引用한 것이다. 곧 世上의 艱難辛苦를 모른 천진한 女主人公을 부각시킨 것이다.

第三·四의 兩句는 ‘長干’이라는 地名이 풍기는 地方色, 即 商人에게 시집을 온즉, 님은 자주 外地로 出他하게 되었고, 離別의 장소인 선창가의 슬픈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第五·六句에서는, ‘南風’의 溫和한 분위기로 新婚期 夫婦의 愛情이 한결 따뜻한 一面을 나타내고 있다.

第七·八句는, ‘西風’으로 하여금 愛情의 密度가 떨어지는 인상을 자아내고 있어, 心亂한 고통을 더욱 暗示한다.

第九·十句에서 서로 나뉜 時間이 너무 많아서, ‘去來’라고까지 하여 가고 오는 님의 여행 길의 근심과 걱정으로 님의 愛情의 強弱을 가늠하면서 女性 本然의 內面像을 보이고 있다.

第十一·十二句에서는, ‘湘潭’으로 ‘洞庭湖’를 聯想케 하며 現實의 苦難과 風波를 넘어서, 그곳에서 님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自身の 꿈을 그리고 있다.

第十三·十四 兩句는, 現實化되지 않는 꿈일 뿐, ‘狂風’이라는 극한적인 表現으로 祥瑞롭지 못한 狀況을 想像케 한다. 냇물과 나무는 調和를 이루고 있는데, 狂風으로 因해서 나무가 꺾임은 애정이 열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第十五·十六句에서는, ‘ㄱㄱ’(묘묘)로 安절부절못해 하는 女心の 內心을 表出하여, “行人在何處?”라고 표현했다.

第十七·十八句는, 前句의 대답으로 安靜된 자세에서 ‘浮雲驄’와 ‘蘭渚’라고 故事를 사용하여 表現의 美化를 꾀하고, 好時節을 연상하게 한다.

中國人은 古代부터 南쪽과 東쪽을 상서로운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東’字를 썼다.

第十九·二十 兩句는, 님없는 鴛鴦衾과 鴛鴦枕이 寒冷하고 冷冷한 面을 보여서, 自身の 고독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第二十一·二十二句에서, 自身の 身上의 가련함을 스스로 한탄하며, 복숭아빛의 붉고 아름다운 얼굴의 꿈다란 少女 面을 回想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面도 있지만, 同時에 堅強한 一片丹心

의 님에 대한 情操를 隱喻한다.¹⁴⁾

이러한 例들은 그의 詩를 通해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¹⁵⁾ 그 때의 桃花에 대해서 보자.

桃花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의 하나인데, 唐代 長安의 초봄에 피는 것이 可觀이었다. 皇帝가 居住하며 政務를 보던 大明宮에는, 大量으로 桃樹가 심어져 있어서, 每年 봄의 燦爛함은 형언키 어려울 정도였다. 그것에 대해서 杜甫는 「奉和賈至舍人早朝大明宮」에서 그를 읊고 있으며, 「桃花行」이라는 同一한 題名을 가지고 李嶠, 蘇頌, 李艾, 趙彥昭가 쓴 詩도 있다.¹⁶⁾

第二十三·二十四句에서, 長干里의 女主人公이 님께 시집을 가게되어서 냇가의 물소리가 출렁이는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되었고, 또한 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되는, 상인의 妻의 心像을 表出하고 있다. 그러나 同時에 商人의 妻로서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한 隱喻의 手法이다.

위 詩의 要旨는 「長干行」一首에서 表出하지 못한 事緣을 ‘風’과 ‘水’의 이미지로 調和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다. ‘風’은 여름에는 南風으로, 가을에는 西風으로, 겨울에는 드디어 狂風으로 변한다. ‘水’는 湘潭 즉 洞庭湖의 물이 결국에는 淼淼(묘묘)한 호숫물이 된다. ‘風’은 詩 中の 님을, ‘水’는 商人의 妻를 比喩하고 있으며, 最終의 句에서 ‘愁水復愁風’라고 하여 ‘님’께 向한 至高의 愛情 表示와 自身の 別離의 苦痛을 婦德으로 克服하고 있다.

本 詩에서는 對照의인 心像의 詩像으로 調和의 意味를 찾을 수 있고, 女主人公의 변하지 않는 確固不動한 所信의 世界를 알 수 있다.

3. 江夏行

憶昔嬌小姿	그리운 옛날, 어릴적 내 모습엔
春心亦自持	戀心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었죠.
爲言嫁夫婿	신랑을 택해 결혼을 하고 나면
得免長相思	오래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어지련만.
誰知嫁商賈	뉘 알았으랴, 상인에게 시집 갈 줄을
令人却愁苦	사람으로 하여금 수심을 일으키게 하네.
自從爲夫妻	부부로 맺어진 연후에도
何曾在鄉土	낭군님은 언제나 장사 일로 떠돌고
去年下揚州	지난 해는 揚州에 내려왔다기에
相送黃鸝樓	황학루에서 그를 마중하고서
眼看帆去遠	님이 탄 배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心逐江水流	마음은 강 물 따라서 흘러 가네.
只言期一載	다만 일년이면 돌아 온다고 했거늘,
誰謂歷三秋	어느덧 삼년이 지나 버렸네

14) 栗斯, 『唐詩故事』 第三集. 1981. p. 25.

15) 古風 「五十九首 其四十七.」 桃花開東園, 含笑誇白日. ..

16) 栗斯, 上揭書. p. 24.

使妾腸欲斷 아낙네 수심은 단장의 설움뿐
 恨君情悠悠 아아 멀리 떠난 그대의 무정함이어
 東家西舍同時發 모든 이웃들은 모두 떠나 버리고
 北去南來不遑月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한달이 못미처 돌아왔네
 未知行李遊何方 낭군님은 어디에 길 손으로 지세우시고
 作箇音書能斷絕 편지를 띄어도 소식은 감감
 適來往南浦 가끔 남포로 나가서
 欲問西江船 서강 가는 배에 문안 들으러 갔었네
 正見當爐女 취사하고 있는 여인들 바라 보니
 紅粧二八年 화장한 아낙네는 열 여섯 살의 청춘들
 一種爲人妻 남처럼 신부가 되어 있으면서도
 獨自多悲懷 내 홀로 비참함은 더하네
 對鏡便垂淚 거울을 대하니 눈물만 하염없어
 逢人只欲啼 사람을 만나면 주룩 주룩 뿌리네
 不如輕薄兒 이처럼 경박한 아녀자는 아닌듯
 且喜長相隨 아침 저녁 서로 보고 지고
 悔作商人婦 상인의 아낙네되어 후회스러워
 青春長別離 젊은 청춘 외롭게 살아 가네
 如金正好同歡樂 지금은 환락을 같이 할 나이인데
 君去容華誰得知 떠난 낭군님, 화장기 없는 얼굴 뉘 알아 주리.

[妾·持·思(支韻) 賈·苦·土(麌韻) 州·樓·流·秋·悠(尤韻) 發·月·絕(月韻) 船·年(先韻) 妻·悽·啼(齊韻) 兒·隨·離·知(支韻)]

위의 詩에 대해서는, 樂府詩나 古近體詩 보는, 學者들의 見解차가 있다. 前者는 胡雲亨, 晉樹人¹⁷⁾, 大野實之助¹⁸⁾ 等이며, 後者는 王琦 等인즉, 久保天隨¹⁹⁾는 胡雲亨의 樂府詩라는 말을 引用하면서 王奇 本에 依據하여 歌吟에 揭載했다.

이 詩는 四段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제1~8句까지 一段, 第9~16句까지 二段, 第17~24句까지 三段, 第25~30句까지가 四段이 되겠다.

第一段에서는 「長干行」一首의 第一·二段에서처럼 自身이 少女時節과 商人의 妻로서의 面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약간의 差異가 있는즉, 竹馬之交가 아닌 상황에서 結婚했다는 것이다. 또 '相思', '愁苦'의 單語가 쓰인 점이다.

第二段은 黃鶴樓와 黃鶴이라는 用事가 쓰였다는 점에 注意가 必要하다.

黃鶴樓는 湖北省 武昌縣에 있으며, 옛날 神仙이 黃鶴을 타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地名 用事로써 그의 詩歌에서 흔히 引用되고 있다. 즉 「江夏送友人」, 「贈王判官時余歸隱居廬山屏風臺」,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 「峨眉山人歌送蜀僧晏入中京」, 「廬山謠寄盧侍御虛舟」,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주된 意味 혹은 이미지는 離別 또는 그 場所로 使用되고 있다.

黃鶴은 贈詩에서 자주 引用되고 있으니 「登敬亭山南望懷古贈寶主簿」, 「書情贈蔡舍人雄」等이

17) 晉樹人, 「李白和他的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p. 97.

18)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大出版部, 1980. p. 59.

19) 久保天隨, 「李白全詩集」(上卷)東京, 日本圖書, 1978, p. 780.

다.

李白的 詩歌에서 揚州를 地名 用事로 자주 쓰이니 상세히 알아 보겠다.

揚州는 長江 下流의 北岸에 位置해 있으며 大運河와 揚子江이 交遮하는 地點에 位置해 있어서 交通의 要地이다. 唐 以前에는 廣陵과 江陽이라고 불렀었다. 揚州가 세워진 때는 약 二千四百餘年前 吳王 夫差의 時代였었다. 隋·唐時代에 이르러서는 交通이 便利해 졌으므로, 中國 內地는 물론이러니와 外國의 商品까지도 集散하는 都市가 되었으니, 揚州는 中國에서 東南 最大의 商業 都市가 되었으며, 또 對外 貿易港口가 되었다.²⁰⁾

李白은 揚州를 廣陵이라고도 썼으며, 그의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은 이 段과 作詩 수법과 內容이 同··하다고 하겠다.

商人의 妻가 님과 다시 헤어지는 모습과 李白이 詩友로서 敬愛했던 孟浩然과의 離別의 場面을 單語의 排列로 比較해 再構成해 보면－：

去年	煙下三月
下揚州，	下揚州，
相	故人
送	西辭
黃鶴樓，	黃鶴樓。
眼	孤帆
看	遠影
帆	碧空
去遠，	盡，
心	唯
逐	見
江水流。	長江天際流。

[州·樓·流 (尤韻)]

離別이라는 陳腐한 單語를 쓰지 않고 長江의 흐르는 물에 思慕의 情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²⁰⁾ 第三段에서는, 님과 다른 商人들과 비교하고 消息마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으며, 또 微賤한 女子들의 愛情에 찬 生活狀과 그녀 自信을 비유하여 孤獨感을 託意하고 있다.

李白은, 特히 積極的으로 民歌에 接近한 詩作을 펴했으니, 곧 “味知行李遊何方, 作箇音書能斷絕”과 같은 것이 그것이며, 當時에는 口語體로 매우 生動하게 사용되었다.²¹⁾

李白은 民歌의 우유에 依해서 成長했다고 할 정도로 作品이 많다.²²⁾ 그는 民歌 學習을 열심히 했겠지만, 또한 直接 生活하는 가운데서도 當代의 民歌를 터득한 것이 많다.

20) 栗斯, 前掲書, 第四集, p. 235.

21) 胥樹人, 前掲書, p. 97.

22) 安旗, 「李白縱橫探」 中國陝西人民出版社, 1983, p. 99.

第三段에서 第一 重要한 問題點이 되는 것은 “未知行李遊何方”인데, 第四段的 첫 句에서 “一種爲人妻”라고 대답하고, “不如輕薄兒”라 하여서 강한 意志力을 보이고 있다.

結二句는, 詩經에 있는 “豈無膏沐, 誰適爲容”과 “如今正好同歡樂, 君去容華誰得知”는 마치 그 뜻을 傳承한 것 같지만, 더욱 새로운 意義를 表現했다고 하겠다.²³⁾

李白은 「春夜宴桃李園序」에서 “光陰者, 百代之過客也. 而浮生若夢, 爲歡幾何.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況陽春召我以煙景, 大塊假我以文章.”라고 하여 세월이 덧없음을 한탄한 것처럼, 婦女子의 젊음이 流水와 같이 흘러 덧없고 애처로움을 노래한다.

4. 巴女詞

巴水急如箭 巴水の 물은 쏜살 같이 흐르니
巴船去若飛 巴船은 나는듯 내려 가네
十月三千里 시월엔 삼천리의 먼 뱃길도 아니련만
郎行幾歲歸 남게선 어느 해에나 돌아오는지
〔飛·歸(微韻)〕

위의 詩는 李白이 25세 때의 作品이니, 清新하고 斬新하여 自信 滿滿한 氣魄으로, 即席에서 쓴듯한 五言絶句다.

巴水는 巴地方의 내이니 곧 揚子江 上流 地域이다. 蜀(四川)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그가 故鄉을 떠나서 몇개월 이후 씀의 作品이라고 하겠다.

唐 時代는 商業이 發達하기 시작한 때로 巴(重慶), 蜀(成都)와 吳(蘇州), 楚(江陵) 地方 사이에 長江을 끼고 있다. 故로 水上 交通단이 發達하여 交易이 대단히 繁盛하게 됐다.²⁴⁾ 그것은 陸路 交通보다도 水路 交通이 더 便利했기 때문이다.

李白이 故鄉 蜀은 盆地에서 農業 生産이 풍부한 지역이고, 後漢때 五斗米道(道敎의 原流)가 發生한 곳이므로 道士들이 深山에서 修業하기로 적당한 곳이었다.²⁵⁾ 그와 같은 고장에서 少年時節을 보냈으므로 道敎적인 作品도 쓰게 된 동기라고 하겠다.

第一句의, “水急如箭”은 “光陰如矢”, “光陰似箭” 혹은 “日月如梭”으로 代置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또 “一寸光陰一寸金” 혹은 “一寸光陰不可輕”으로 代置할 수 있다.

第二句에서, “巴船”은 巴地方이 長江에 沿海 있는 商業 都市이므로 “商船”을 意味하고 있다.

第一·二 兩句는 商人의 妻인 女主人公의 입장에서 “青春急如箭”, “青春去若飛”로 聯想을 하게 된다.

23) 久保天隨, 前掲書, pp. 784~785.

24) 郭沫若, 前掲書, p. 20.

25) 高島俊男, 『李白과 杜甫』, 東京, 評論社, p. 40.

第三句의 “十月”은 秋季의 意象이며 “孤寂”을 意味하겠으며, 또 年末을 뜻하여 一年이 지남을 아쉬워하고 있다. “三千里”는 誇張法이며, 님과 時·空間적으로 距離感을 느끼게 하고 있다.

第四句는 常套語의인 表現으로 “一刻如三秋”와 같은 느낌이다.

第三·四 兩句는 一年의 成熟期요 凋落期の 兩面的인 十月로써, 님께 向한 女心の 風滿함과 衰落함을 엿보게 한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詩情으로서는 곧 離別의 苦痛을 堪耐하는 孤獨感을 深遠하게 強調한 一種의 屈折로써 女心の 呼訴를 돋보이게 하는 바다. 律動性和 變化의 效果와 推移性을 表現하면서, 青春의 一時限을 暗示하고 있다.

荊州歌

白帝城邊足風波 백제성 언저리에 센 바람과 물
瞿塘五月誰敢過 구당협 오월은 누 님을 수 있으리!
荊州麥熟蔞成蛾 형주에 보리 익을 무렵 누에가 나방이 되고
綠絲憶君頭緒多 실을 짜며 님 걱정 한이 없네
撥穀飛鳴奈妾何 댕구기 날아 우니 난들 어머하리

[波·過·蛾·多·何(歌韻)]

위의 詩 역시 李白이 25세 때의 作品이어서 精氣가 潑刺하다. 그는 24세(728年) 가을에 廣闊한 世界로 나왔으니²⁶⁾, 意氣 揚揚한 때의 作品이라고 하겠다.

白帝城 附近의 風景을 描寫하면서, 그곳의 民歌를 바탕으로 商人의 妻의 心情을 第一人稱 手法로 조상해 낸 것이다.

第一·二 兩句는, 女主人公이 白帝城 近處의 바람이 強하고 水波가 높은 것을 걱정하며, 瞿塘峽 灘頭堆의 뱃길을 우려한다.

第三句는 보리가 익을 무렵, 자신은 명주실로 뽀느라고 바쁜 時期가 되었다.

第四句는, 명주실을 뽀으면서도, 오직 님을 그리는 마음이 亂 紛紛하여 실을 고르게 뽀지 못하였음을 말한다. 六朝 民歌에서는 “絲”와 “思”를 通用하여 썼다.²⁷⁾ “頭緒多”는 자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心亂한 感情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第五句는 댕구기가 雙雙이 날면서 즐겁게 지저귀니, 님을 떠나보낸 女人은 정신이 어수선해진 다. 댕구기는 杜鵑科의 새로 離別의 恨을 象徵한다.

梁의 簡文帝의 「荊州歌」에서 “雉飛麥熟妾思君”이라는 詩句가 있은즉, “麥”과 “撥穀”을 곁들여 썼고 原詩의 詩趣를 자아내게 하고, 몇개의 글자를 뒤바꿔 놓으므로써 構想의 새로움을 시도했다.²⁸⁾

26) 郁賢皓, 『李白叢考』中國, 陝西人民出版社, 1982, p. 15.

27) 胥樹人, 前揭書, p. 88.

28) 久保天隨, 前揭書(上卷), p. 368.

綜合적으로 보건대, 白帝, 瞿塘, 荊州의 地名을 썼으며, “麥熟”, “綠絲”, “撥穀飛鳴”이라는, 그 地名 固有的 鄉土色 짙은 어휘로 情感을 일으키고 있다.

Ⅲ. 結 論

李白的 閨怨 詩 가운데서, 一般的인 庶民 女性의 女性像을 描寫함으로써, 그의 性格上의 人情味를 볼 수 있다.

그는 特히 「長干行」과 「江夏行」에서 對照的인 女人像에 대한 愛情의 갈등을 彫像해 내었다.

「長干行」에서의 女主人公은 ‘님’에 대해서 오직 사랑만을 쏟고 早速히 歸家하기만을 祈願할 뿐이었다. 「竹馬之交」·「青梅竹馬」의 純眞한 友情으로 始終一貫하는 女性像을 描寫하면서, 또한 別離의 苦痛을 참아내는 데서 약간의 心理的인 ‘波長도’ 엿보이게 하고 있다. 黃金을 重視하고 愛情을 輕視하는 時代的 背景에서 장사하러 멀리 떠나 있는 ‘님’에 대해서 사랑의 強요는 秋毫도 없다. 別離의 苦痛을 堪耐하고 社會的인 因襲을 順從하며 青春이 헛되이 지나감을 아쉬워할뿐더러 ‘님’에 대한 一片丹心을 強烈히 호소하고 있다. ‘님’과 같이 열려 幸福하게 살고 싶다는 女子의 原始的이고 素朴한 바램이 感動을 일으키게 한다.

「江夏行」에서도 內容面에 있어서는 「長干行」과 別 差異는 없지만, 獨守空房하는 女主人公의 別離의 苦痛을 “眼看帆去遠, 心逐江水流”로 表現하여 心理的인 葛藤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不如輕薄兒, 且暮長相隨”라고 하여 自身の 整理된 心理의 一面을 보이고 있다. 즉 閨怨의 模型은 같으나 「長干行」에 比해서 逆說的인 表現의 技法을 使用했을 뿐이다. 反對가 反對를 이룬 詩型이라고 하겠다.

「巴女詞」와 「荊州歌」는 李白이 雄志를 품고 蜀에서 廣濶한 世界로 나와서, 白帝城 近處의 女人像을 景觀과 流水에 비유하여 別離의 苦痛을 新鮮하고 鮮明하게 表出했다.

總體的으로 살펴보자면, 新婚期의 夫婦의 別離를 크로즈-업 시켜서, 그 當時의 普遍的인 社會의 背景을 가슴 아파하는 李白의 人道主義를 알 수 있겠다.

李白의 健全하고 人間存重의 人本思想으로 하여, 위에서 探索한 바와 같은 作品은 그의 內心의 世界, 즉 性格에서 起因한 것이며, 詩歌의 風格이라고 하겠다.

그의 「長干行」一首야말로 白居易의 「瑟琶行」과 필적하는 絶品の 雙壁이며 永遠不朽의 抒情詩의 代表作이기에 人口에 膾炙하는 所以라 하겠다.

Summary

The Image of a Merchant's Wife in Li-Po's (李白) Poetry

Kwak Ih-boo

A wide range of materials can be found in LiPo's poetry, with those of love and nature in his proper element. Many of his love poems gave a pathetic description of the women who were hungry for men's love, as was often the case because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was prevalent in the ancient Oriental Society, though we find a wide difference in the tone of that description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of those women.

This paper is to analyze those poems among his love poems that depicted the women who were living in solitude with their husbands away from home. The solitary women in those poems belonged to common class, and LiPo gave the narration by the first-person method unlike his favorite method of the third person, i. e. pretending that he became the merchant's wives.

Putting the story shortly, the husband leaves home getting on board a ship along the Yang-zi-jiang just in the midst of her honeymoon. The bride simply hopes for his early return, but he does not come back breaking his promise, and so his betrayal leaves her in the woes of separation with his whereabouts unknown. LiPo's rhetorical expressions reaches impressive points in describing the heart-broken bride who makes no reproachful remarks having no news from his husband and longs only for their reunion at the earliest date.

One of such rhetorical expressions is seen in the phrase in which the lost husband is compared to the water of the Yang-zi-jiang. That is to say, the river of Yang-zi-jiang flows down into the sea and makes no return for ever, resembling the lost youth of the star-crossed couple. Both their honeymoon and the river can take no second course.

LoPo is making a kind of indirect charge against the husband's mercilessness which makes much of money, belittling the worth of youth and against the social custom in which man's superiority to women was taken for granted. LiPo's attitude of humanism may be seen in his sympathetic description of those women's pitiable lot in the past Oriental Society. His thought seems to be that of democracy in that he portrayed such women as were equal to men in the longing for youthful love.